

한반도 서남권 공동발전 비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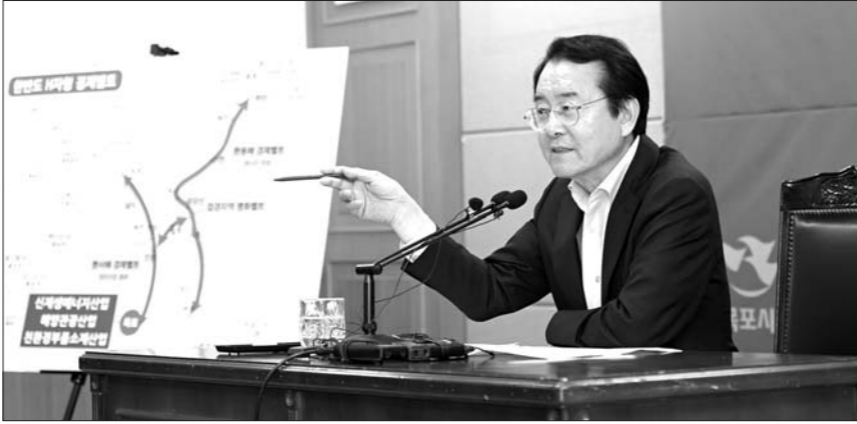
목포시, 종합발전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 프로젝트 사업 발굴

목포시가 전남 서남권과 공동 발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관광산업, 수산업 등을 발전시킬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큰 그림에서 미래 비전을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구상은 변화하는 국내의 정세와 관련 전남과 대한민국의 서남권이 아닌 한반도 서남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목포에게 기회는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발표한 H자축의 한반도 신경제지대에서 목포는 환해권 경제벨트의 출발점이다. 시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해 시정 목표도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로 설정했다.

시는 출발점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다지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바다, 갯벌, 섬, 농수산물 등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는 서남권 인근 자치단체와 동반 성장해야 평화경제 공동체의



튼튼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서남권 경제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목포상공회의소와 함께 서남권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서남권 종합

발전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연말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서남권 9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완도, 진도, 영광, 함평)을 대상으로 서남권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수립해 환해권 경제벨트의 시작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

및 주요 사업 등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용역을 통해 시는 해양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수산식품 산업 등 서남권 미래 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중점 발굴할 방침이다.

시는 부산이 한반도 동남권의 경제거점으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목포와 서남권이 함께 공동 발전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해 사업을 정부 정책에 단계적으로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김중식 시장은 "이번 용역에서 제시될 서남권 종합발전 비전과 구상을 바탕으로 내년 8월 8일 섬의 날에 목포선언을 하고, 정부를 설득해 낙후된 서남권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목포=백민성기자 mspark214@naver.com

못생겨도 맛있는 '추황배' 본격 수확

당도 평균 13브릭스 이상 폴리페놀도 다량 함유

나주시의 대표 특산물 나주 '추황배' 수확이 이주부터 본격 시작됐다.

추석 전후로 증생중인 신고배의 집중 출하시기가 지난 후 수확하는 만생종 추황배는 올해 폭염 날씨로 인해 평균 숙기인 20일보다 5일 정도 앞당겨졌다.

추황배는 1985년 농촌진흥청 배연구소가 육성한 우리나라 품종으로 험상궂은 생김새에 검은 반점이 있어 못생긴 배로 불린다.

겉모습과는 달리 과즙이 풍부하고, 특히 당도가 높아 신맛과 조화를 이뤄 새콤달콤 씹는 맛이 일품이다.

농가별 편차는 있지만 측정결과 평균 13브릭스 이상의 당도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추황배에는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건강 과일로도 인기가 높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추황배 수확량은 약 1천300톤으로 예상된다. 전체 과수능가 배 생산량의 3~4%에 해당한다.



시 기술지원과는 지난 5월, 나주APC와 함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3곳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황배 시식·판촉행사를 열어 나주 배 품종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내 고유 품종인 추황배는 과실 크기가 작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최근 소비시장의 구매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기 품종"이라며 "무지배럴 배 육성, 대과위주의 생산 절감, 신제품 개발 등 명품 나주배 육성 정책에 힘써 농가 소득증대와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진성기자 suk1586@naver.com

영광군 강소농 모임체 서울서 벤치마킹 실시

영광군 강소농 자율모임체는 최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좋은 먹거리와 바른 식문화 발굴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열장' (열굴있는농부시장)에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직접 만나 도시농업 관련 문화를 경험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다.

또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가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강소농 회원끼리 트렌드와 상품디자인에 대한 서로사향을 논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을 생산·유통하여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율 실천모임체 정밀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소농 자율모임체가 직거래 판매와 유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정병현기자 yjic1130@harmail.net



완도 장보고대교.

장보고대교 개통 후 상권 활성화 모색

완도군, 이용객 불편 없도록 편의시설 등 점검

완도군은 최근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 상권 활성화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장보고대교 개통이전부터 추진했던 23개 분야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개통 이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동부권 버스 노선은 탑승객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완도읍 동부권 주민의 의료기관 방문객은 개통 전 대비 49.3%, 노인 목욕복지 지원 사업에 따른 목욕권 사용률도 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 운행 개선으로 단일요금제(전 구간 1천300원) 시행과 선박운항 시간에 맞춘 버스운행 횟수(1일 25회)조정 등

으로 일 평균 358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일반의약품판매 가격 조정으로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목욕복지 지원으로 고급, 약산 주민들이 식당과 시장을 이용하여 완도읍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한몫하고 있으며, 목욕권을 아·미용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매달 실시하는 물가 조사에 의하면 농축산물(마트)과 생활필수품(마트)은 같은 회사의 제품도 마트마다 차이가 있으며, 강진군과 비슷한 가격이고 선구품은 마량면보다 완도읍과 약산면이 낮게 조사됐다.

작은 영화관(완도빙그레시네마)은 1일

평균 198명이 관람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도읍 주민들은 고급면의 소고기, 약산면의 흑염소를 먹기 위해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군에서는 완도읍 상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어린이놀이터 문화콘텐츠 구축 ▲국지도 굴곡도로 개선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신우철 군수는 "소안, 노화, 보길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완도읍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조성근기자 chosg11@harmail.net

'청렴 영암' 로드맵 만들고 관련 사업 발굴

영암군(군수 전동평·사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청렴한 영암군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영암군은 2019년 공직자 청렴을 위해 4개 신규사업을 발굴해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내용을 보면 '청렴 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영암군정의 공직 청렴도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청렴의 길 찾기 선인체험을 통해 다산 정약용 등 선대의 청렴한 공직자들의 삶을 체험하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스스로 청렴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교육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렴 공감 문화체험, 이달의 청렴 직원 칭찬 릴레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청렴"이라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암군에서는 올해 공직자들의 청



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공직자 청렴 실천 결의대회, 청렴 마인드제고를 위한 "슬기로운 공직생활" 연극공연, 퀴즈로 배우는 "청렴 골든벨 대회" 등 행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했다. 또한,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해 공직 내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행위를 접수해 공공기관내 갑질 문화 근절에 앞장서왔다.

영암군 관계자는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만큼, 공직사회에서 스스로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청렴이라는 가치관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철민기자 kcj7146@naver.com

장흥 통합의학박람회서 '무안감동' 홍보관 운영

무안군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장흥군 안양면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에서 '함께하는 무안여행 무안감동'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 군은 관람객들에게

혈관상태와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개별적으로 알맞은 건강관리법을 제공하고, 지역특산품인 양파, 양파즙, 고구마, 황토쌀, 연잎차 등을 전시 홍보하여 우리군 건강기능식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혈관진단결과에 따라 혈관에 이로운 지역특산품을 연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무안=백태웅기자 mdr007@harmail.net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왕좌의 게임> (번역)
제임스 포크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임스 카비젤

AFFIRM FILMS PRESENTS IN ASSOCIATION WITH GIVING FILMS AN ODD FILMS PRODUCTION IN ASSOCIATION WITH MANDALAY PICTURES A FILM BY ANDREW HYATT
"PAUL: APOSTLE OF CHRIST" JIM CAVIEZEL OLIVER MARTINEZ JOHANN WALLEY JOHN LYNCH AND JAMES FAULKNER ***PATRICIA BUZZI, CSA
***LUCIANO CAPOZZI ***JAN A. FRANZMAYER ***SCOTT RICHER ***DAVE ARONSON ***SERGIO MADRIZI ***ANDREW ERIC SCOTT
***RICK JACKSON ***HARRISON POWELL ***LIM CAUZZEL ***T.J. BERDEN ***DAVID ZELON ***ANDREW HYATT AND T.J. BERDEN ***ANDREW HYATT

PG-13
PAULMOVIE.COM | @PAULMOVIE 4인상 (재) CBS | 15세 이상 관람가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다!

전미 박스오피스 8위!
기독교 흥행 대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PAUL: APOSTLE OF CHRIST

10월 31일, 전국 극장 대개봉

단체관람 문의 | 광주CBS 총무국 062. 376. 8500

(EVENT)

e-Book [생각하는 힘: 세계사 컬렉션 11-바울: 크리스티교를 세계화하다]
역사적 관점에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추적한다! 영화 (바울) 관람 시, [바울: 크리스티교를 세계화하다]
e-Book 90일간 무료대여! 자세한 사항은 CBS시네마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세요.